

한 · 중 인쇄문화

한국대표단 4일간 북경 · 위해시 방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는 '한·중 인쇄문화교류'를 위해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지난 9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96년 인협과 중국인쇄기술협회가 맺은 한·중 인쇄문화교류의 일환이었으며, 산동성에 위치한 위해시 인쇄단지 시찰을 위한 목적도 겸해 진행됐다.

신뢰감 바탕으로 발전방향 모색

16일 오전 10시 45분, 중국 북경공항에 발을 내리자 '한·중 인쇄문화교류회의'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8년여를 교류해 오고 있는 중국인쇄기술협회 무문상 이사장, 고영청 부이사장 및 임원, 중국인쇄그룹 부사장 겸 중국인쇄총공사 고복성 사장, 화련인쇄공사 강남 부사장, 신문출판사 관계자 등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방중 일정은 중국인쇄기술협회 무문상 이사장의 초청오찬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무문상 이사장은 "양국 인쇄협회의 교류가 올해로 8년이나 된 만큼

많은 신뢰감이 생겼고, 앞으로도 양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인협 민재기 회장은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양 협회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며,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해 주신 중국정부 신문출판서 김의천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환영오찬에 이어 방문한 곳은 우리에게 신화사통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화그룹 계열의 인쇄회사인 북경신화인쇄. 중국 최대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북경신화인쇄는 국영기업으로 전국 각처에 지사가 있으며, 다색 윤전기 및 매엽 인쇄기를 비롯해 제본시설까지 갖추고 토털 인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오래된 여러 동의 건물들이 이 회사의 역사와 규모를 짐작케 했다.

이어 방문한 인쇄회사는 이장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북경화련인쇄공사.

이장경제개발구는 1998년부터 IT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북경에 설립된 하이테크단지로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

교류 새 장 열다

1. 북경공항에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좌측 9번째)이 임원들과 함께 나와 대표단을 환영해 주고 있다
2. 중국인쇄기술협회 측에서 주최한 오찬에 초대돼 인협 민재기 회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3. 중국 최대 규모의 북경신화인쇄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대표단
4. 국영기업과 홍콩기업이 합작해 2001년 설립한 북경화련인쇄공사에서의 대표단



업들이 입주해 있다.

북경화련인쇄공사는 2001년 국영기업과 홍콩기업이 합작 투자한 회사로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고급인쇄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은 지난해 있었던 아시아프린팅어워드 아트프린팅부문에서 한국의 비지아이(대표 남원호)와 금상을 다투어 비지아이에 금상 자리를 내주는 했지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에서는 인쇄물에서 나오는 파지 및 인쇄작업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이용해 책표지 및 지기 등을 만들어 전시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된 전시물들은 산뜻한 아이디어와 함께 상품성도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었다.

북인인쇄기 국내 전시회에 출품키로

두 곳의 인쇄회사를 거쳐 방문한 곳은 중국의 인쇄기계 메이커인 北人(BEIREN, 북경인민의 줄임말)인쇄기계공사. 아직까지는 정밀도 면에서 일본이나 독일의 메이커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

이고 있으며, 매출액도 급상승해 2003년에 한화로 1천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수출과 국내 수요가 폭증해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란다.

북인그룹은 국영 병기 제조회사에서 인쇄기계 제조회사로 탈바꿈한 회사로 전국에 걸쳐 운전 인쇄기, 매엽 인쇄기, 그라비아 인쇄기, 전산품 인쇄기, 화폐 인쇄기 등을 비롯한 인쇄 전후 시설을 생산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도 현지공장을 설립해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날 인쇄회사와 인쇄기계회사를 방문한 한·중 인쇄문화교류회의 대표단은 북인그룹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초대돼 환담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재기 회장과 북인인쇄기계공사 육장안 사장은 한국인쇄전시회에 북인인쇄기를 전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국정부 우호증진과 인쇄문화발전 위해 노력

중국인쇄기술협회와 중국인쇄총공사는 한·중인쇄문화



교류회의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중국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북경에서는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승덕 피서산장(황제의 여름별장)이라는 곳에 초대했다.

승덕 피서산장은 하북성 승덕시 북부 산 속에 위치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 나라 정원 중 하나이며,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피서산장은 역대 황제들이 북경의 더위를 피해 4월에서 9월까지 정무를 보던 곳으로 유명하다.

승덕 관광에 이어 북경에 도착한 대표단은 신문출판사(한국의 문화관광부) 이심 인쇄처장이 마련한 환영 만찬에 초대됐다.

만찬장은 북해공원(옛 왕궁 안에 있는 황제의 식당)이었으며, 이곳의 요리는 황제에게 올렸던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에서 준비한 선물교환이 있었으며, 이심 인쇄처장은 “앞으로도 한·중 우호증진과 인쇄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인협 민재기 회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국의 인쇄문화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양국 대표단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질적 교류증진과 양국 인쇄기술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중 인쇄문화교류회의 대표단 명단

-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 박종일 인협 명예 회장
-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
- 김용환 창문사 대표
- 남원호 비지아이 대표
- 도경수 HAMMER ART 대표
- 민창준 창성문화사 대표
- 박종갑 서보미디어 대표
- 서병기 정민프린테크 대표
- 오세의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
- 유근호 중앙인쇄사 대표
- 이재복 성신문화사 대표
- 정용식 한보인쇄사 대표
- 최호경 현대미술 대표
- 홍우동 동국전산 대표

위해시 한국의 기술·자본 투자 위한 방안 모색
 방중 삼일째에는 북경을 떠나 연대공항으로 이동했다.
 위해시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호텔로 이동해
 위해시 왕배정 부서기와 인협 민재기 회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행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왕 부서기는 위해시 소개와 함께 비전, 그리고 한국 인쇄인들의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인협 민 회장은 좋은 도시에서 중국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지만 한국의 인쇄들이 납득할만한 투자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는 등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과 왕 부서기가 주최한 오찬에 이어 위해시 하이테



5. 복인인쇄기계 초청 만찬에 참석한 대표단
6. 승덕에 위치한 라마교 사원 앞에서
7. 중국인쇄기술협회로부터 선물을 받은 전현직 인협 회장(좌측 첫 번째가 이심 신문출판사 인쇄처장)
8. 민재기 회장이 무문상 이사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9. 위해시 왕배정 부서기(우측)와 함께 회담하고 있는 인협 민재기 회장
10. 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
11. 위해시에서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대표단

크게발구를 방문, 인쇄공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두 곳의 인쇄사를 방문했다.

두 곳의 인쇄사는 북경에서 방문한 두 곳의 인쇄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한 곳은 중국산(경덕진인쇄포장기계) 2도 인쇄기와 수동 소형 타발기 등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곳은 미국산 윤전기와 날장 수동형 인쇄기, 각종 수동형 가공기로 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표단 일행은 우리나라 70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조율 통해 투자키로

하이테크개발구의 인쇄단지 방문을 마치고 위해시에서 마련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대표단은 부동산 관계, 인쇄물 수주 가능성, 위해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해시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위해시와 근교에서는 고급인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투자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과실송금 관계의 불분명함 등은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렸다.

중국 측은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한국측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해 주고 투자를 위해 한국 내에서 많은 홍보활동과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와 주기로 했다.

투자설명회에 이어 위해시에서 마련한 만찬에는 위해시 신문출판국 전기민 국장을 비롯해 출판판공실 신문출판국 왕계평 국장, 망해그룹 손수인 사장, 하이테크개발구 왕강 주임(부서 총 책임자), 하이테크개발구 신문출판판공실 서동범 주임, 그리고 인협과 위해시와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해 준 위동항운유한공사의 단국방 사장도 참석했다.

위해시 전기민 국장은 “한국과 위해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기후조건도 비슷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해시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쇄업계에서도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협 민재기 회장은 “위해시는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시는 올 연말 한국을 방문해 인쇄업계를 둘러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시에 대한 소개와 투자조건은 본지 9월호 38쪽부터 참조)

〈윤재호 부장〉